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4. 2. 16.

복지문화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
- 발 의 자: 장호섭 의원 등 6명(장호섭, 박정환, 고명옥, 정창근, 박종길, 강한곤)
- 발의일자: 2024. 2. 2.(금)
- 회부일자: 2024. 2. 2.(금)
- 상정 및 의결: 제30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(2024. 2. 16.)

## 2. 제정이유

- 달서구 주민들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응급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라. 위기대응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0조

○ 비용추계: 미첨부대상

○ 입법예고(2024. 2. 2. ~ 2024. 2. 13.)결과: 의견 없음

## 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이 제정조례안은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0조의 응급입원과 관련하여 지역 내 응급 의료서비스 제공 및 사회복귀 서비스 연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정신 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- 5년마다 실시하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평생 유병률은 2016년 25.4%에서 2021년 27.8%로 증가하였고, 정신장애로 진단 받은 사람 중 12.1%만 전문가 도움을 받는 등 정신건강 위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.
- 특히 2023년 8월 경기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정신질환자의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,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정신장애 범죄자 비율은 2012년 0.3%에서 2021년 0.7%로, 정신장애 강력범죄자 비율은 2012년 2.1%에서 2021년 2.4%로 증가하였음.
- 이에 따라 응급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정신건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응급정신질환자의 지역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충분하고,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입법적으로 제정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.

## 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

## 7. 심사결과: 원안가결